

LPG 수입가격 380달러로 상승

프로판 40달러에 부탄 45달러 올라 ... 공급 감소에 중국수요 증가

하락세를 이어오던 LPG 수입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 2월에는 국내 공급가격 결정에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PG 수입기업들에 따르면, 1월 국내 LPG 수입가격은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모두 톤당 380달러로 인상돼 2008년 12월에 비해 프로판가스는 40달러, 부탄가스는 45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LPG 수입가격 인상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감산함에 따라 LPG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LPG 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나 겨울철 수요증가 등 계절적 요인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PG 수입가격은 2008년 11-12월 2달 연속 큰 폭으로 인하됐다.

2008년 12월분 수입가격은 전월대비 프로판가스가 340달러로 150달러, 부탄가스가 335달러로 155달러 하락했다.

11월분도 10월에 비해 프로판가스는 300달러 하락한 490달러, 부탄가스도 320달러 떨어진 490달러였다.

LPG 수입가격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결정해 국내 양대 수입기업인 SK가스와 E1에 통보하고 있으며, 수입가격과 환율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6>